

노인에 서의 피부질환

노령인구증가로 관심늘어



李 惟 信

(서울医大 피부과 교수)

인에게 가장 흔한 피부이상의 하나로, 전신적인 소양증의 경우 만성신부전, 갑상선기능항진, 당뇨, 기생충감염, 진성적혈구증증, 각종 암이나 약물에 의한 반응등에 의해서도 생길 수 있으나 많은 경우에서 다른 특별한 이유없이 발생하며, 정서적인 갈등, 성격, 성적갈등, 우울증 등 정신적인 문제가 원인이 되는 수도 있다. 소양증이 특히 항문이나 외음부에 국한되는 경우도 흔히 있는데 이때는 치루, 치질, 신경피부염, 진균감염증, 요충감염증, 접촉피부염, 건선, 방광염, 질염, 당뇨병 등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도 흔히 있으나, 여러가지 검사상 원인을 찾지 못하는 경

탄하게 되고 심한 경우 피부표면이 갈라지거나 염증이 일어나기도 한다. 너무 잦은 목욕과 과도한 비누의 사용이 이를 악화시키며, 따라서 비누의 사용을 피하고 로션이나 오일 등을 충분히 발라 건조하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루각화증(검버섯)은 중년 이후에 잘 생기며, 대개 지름 1cm 미만의 경계가 뚜렷한 갈색 내지는 흑색의 표면이 거칠거나 매끄러운 약간 융기된 병변이 몸통이나 얼굴 등에 잘 나타난다. 이러한 병변이 갑자기 여러 개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경우 드물게 내부의 암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지루각화증은 특별한 치료를 요하지 않는다.

모반(점)은 인간에서 흔한 종양으로 편평하거나 융기된 병변 등 다양한 양상의 흑갈색이 병변을 보이나 때에 따라 색이 열거나 없는 경우도 있다. 노인에서는 주로 다소 융기된 모양의 복합모반이나 진피내 모반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아주 드물게 암으로 변할 수도 있는데, 암으로 변할 때의 징후로는 크기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색깔이 짙어지거나 주위로 색깔이 퍼질수 있고, 궤양이나 가피가 형성되거나 출혈이 나타날 수 있으며 작은 새로운 병변이 기존의 병변내에 혹은 주위에 나타난다.

가려움증...약물반응뿐만 아니라 정신적문제도 원인 습진성질환...알레르기성 유발물질 사용피하는게 좋아 악성흑색종...노인에 많으며 햇빛에의 노출을 줄여야

우도 허다하다. 항문주의와 외음부의 소양증의 치료는 국소치료제 및 전신치료제 등 여러 가지를 쓸 수 있으나, 이곳의 피부가 연약한 곳이어서 일반적으로 널리쓰이는 강한 국소호로몬제제를 장시간동안 사용시 피부위축 등의 부작용이 흔히 생기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그외에도 잦은 목욕에도 과도한 비누의 사용에 따른 피부건조증에 의해서도 소양증이 생길 수 있다. 피부건조증은 노인에서 흔히 나타나며 주로 겨울철에 생기고 피지의 분비가 적은 정강이나 허벅지, 팔 등의 피부가 건조하게 되면서 가려움증이 나

입술이나 손, 발가락 등과 같이 계속적인 손상을 받을 수 있는 부위의 경우는 예방적으로 제거할 수 있으나 대개의 경우 치료를 요하지 않으며 미용목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습진성 질환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데 특히 노인에서는 피부가 앓아져서 약한 자극물질에도 염증이 잘생기며 그외에도 염색약, 화장품, 비누 등에의한 알레르기성 피부염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평상시에 유발예상 물질을 주의깊게 관찰하여 이의 사용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필요한 경우 철포시험을 시행하여 원인물질을 밝혀내고

위험이 있는 아이들이 환자근처에 가는 것을 금해야 한다.

무좀 등의 피부진균감염증은 대개 나이가 들면 빈도가 줄어들게되나 칸디다증은 흔히 관찰된다. 칸디다간질진은 노인에서 가장 흔한 진균감염증으로 통통한 사람들에서 잘 나타나며, 항상 습기가 차있는 경우나 목욕을 오랫동안 하지 않는 경우에 생길 수 있다. 증상은 주로 접하는 부위(간찰부)에 경계가 명확한 적색의 축축한 판상병변을 보이며 주위에 소수포나 농포가 흔히 동반된다. 장기간의 투병으로 약해진 사람이나 황생체를 장기 간 사용한 사람에서 칸디다가

구강점막을 침범하는 경우도 흔한데 이경우 아구창이라 불리며 구강점막에 유백색의 판을 보인다.

노인에서는 장기간에 걸친 유해인자에의 노출에 의해 각종 암 전구증 및 피부암이 젊은층에 비해 높은 빈도로 나타난다. 일광각화증 혹은 노인성각화증은 노년층에 흔히 나타나는 질환의 하나로 최근에 빈도가 많이 증가되고 있다. 증상은 대개 직경 1cm이하의 인설로 덮힌 딱딱한 구진이 햇빛에 노출되는 부위 즉 얼굴, 손, 대머리두피 등에 나타난다. 과거 건선이나 기타 여러 질환의 치료제로 비소가 쓰였던 적이 있는데 비소를 장기간 복용한 사람들에서 이와 비슷한 비소각화증이 흔히 나타나는데 이때에는 햇빛에 노출되지 않은 피부에도 잘 나타난다. 일광각화증이나 비소각화증은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둘 경우 수년 혹은 그 이후에 편평세포상피암이 될 수 있다.

악성흑색종은 노인에 많고 햇빛에의 노출이 많을수록 증가한다. 악성흑색종은 일상양상에 따라 여려형태를 취하며 서양인의 경우는 표재확장성의 형태가 흔하나 우리나라에서는 선단흑자성흑색종이 가장 흔하다. 선단흑자성흑색종은 손, 발바닥, 조갑 및 조갑주위 등에 고르지 않은 색소침착과 불규칙한 가장자리를 보이는 반으로 시작한다.

악성흑색종은 일반적으로 모반(점)에서 시작하므로 전술한 모반에서의 이상변화가 있으면 즉시 피부과 전문의의 진찰을 받는 것이 좋다.

기저세포암은 피부암 중 가장 흔하며 단단한 구진 혹은 결절의 형태로 주로 안면에 나타난다. 이 역시도 과다한 일광노출이나 비소섭취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중심부에 얇은 궤양이 있고 이를 둘러싸는 진주색의 안으로 말려든 용기된 가장자리로 구성된 잠식성궤양의 형태를 취한다.

이 질환은 전이는 비교적 드물지만 깊숙히 침습할 수 있다. 편평세포상피암은 일광노출 부위에 호발하며 일광노출, X-선치료, 비소각화증, 산업발암물질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가장 흔한 형태는 얕은 궤양과 이를 둘러싸는 넓은 융기된 결절성 가장자리로 구성되며 궤양은 흔히 가피로 덮여있다. 때로는 가피없이 융기된 사마귀모양의 병변을 보이는 수도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신적인 전이는 늦게 나타나 방사선피부염이나 화상에서 유래된 경우에는 암이 초기에 전신으로 퍼질 가능성이 크다.

당뇨인의 벗
「당뇨병 예방치료의 전문지」

月刊
당뇨

지금 신청하십시오

743-9482, 3

(평일 밤 7시, 토요일 오후 6시까지)

■ 정기구독 신청금액
연간 20,000 (12개월)

**K(주) 국제의료기
제 당뇨**

에 관해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당뇨백화점 국제의료기는 당뇨인을 최고의 고객으로 모십니다.

당뇨병에 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십시오.

■ 각종 혈당측정기 취급

- DIASCAN
- 美 H.D.I社
- 그외 모든기종 취급

■ 각종 측정기기

- 주부저울, 체중기

■ 각종 인슐린 주사기

- 바늘없는 인슐린 주사기
- PRECI JET50
- 인슐린 전용 주사기

■ 당뇨 식단전시

- 단위 식품류80여종

■ 인슐린 보관케이스

- 외출시, 여행시 손쉽고
안전하게 사용가능
(보냉효과 우수)

■ 각종 당뇨서적

- 당뇨병의 역사와 다수

■ 판매처 및 월간당뇨 배부처

- 서울 : 745-2421~3
- 부산 : 257-7885·7691
- 대구 : 422-2491~2
- 광주 : 27-7207
- 대전 : 255-6210~1
- 전주 : 75-3802